

유럽의 뜨거운 정보통신 열기 느낄수 있어

— CeBIT '95를 다녀와서

정보통신 관련 박람회로는 세계 최대규모인 「CeBIT '95」를 통해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을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한다. — 편집자주 —

김 세 호 (삼성데이타시스템 홍보팀 대리)

세 계 최대규모의 정보통신 관련 박람회인 「CeBIT '95」가 지난 3월 8일부터 15일 까지 독일 하노바에서 개최돼 세계각국의 정보통신사업 현황을 가늠하고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이 박람회는 최근 세계각국이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21세기 정보하부구조로 선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시점에 개최돼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전세계에서 70여만명이 참관하는등 성황리에 개최된 이 박람회에는 세계 57개국에서 6088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정보산업전, 네트워크 컴퓨터전등 10개의 주제에 대해 모두 23개관에서 PC, S/W, CAD, DB용 S/W, 금융관련 솔루션등 다양한 정보기술 및 통신기기들이 선보였다([표 1]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성, 금성, 현대, 대우등 그룹 계열사 그리고 아라텍, 두인전자, 경덕전자등 중소전문업체등 10여개 회사가 참여해 모니터, HDD, 무선호출기,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 비디오 CD 플레이어등을 전시하는 등 세계 우수기업과 경쟁을 하기도 했다.

멀티미디어 관련기술 비약발전

이번 박람회의 두드러진 특징은 새로운 컴퓨터 환경으로 부상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관련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하

▼ 전시장에서의 필자모습



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과 관련된 전 시장에 광대역 ISDN이나 ATM(비동기식 전송)망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전송서비스 제품이 주류를 이룬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실제로 BT, 프랑스 텔레콤, 지멘스, 도이치 텔레콤, MCI, AT&T등 세계 유명 통신업체들은 세계 통신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관련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였다. 특히 BT와 MCI는 자신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 및 양사가 연합해 설립한 컨서트(Concert)서비스를 집중 홍보했으며 AT&T에서는 TV 온라인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외에도 미국과 유럽 통신회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다자간 화상회의시스템을 출품해 조만간 상용화 시기가 도래할 것임을 예감케 했다. 하지만 출품업체의 대부분이 BISDN을 기반으로 제품을 설계하였으나 화상압축기술이 고도화되지 못한 관계로 상용화의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시스템 구성은 크게 TV와 PC로 구분되는데 현재로서는 PC보다는 TV를 이용한 화상회의시스템의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통신 관련 솔루션 특히 이동

용(Mobile) 통신기기의 출품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점차 소형화·휴대형화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들의 세계화 추세를 가늠할 수 있었으며 무선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디지털 방식을 채용한 제품의 출품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이밖에 이 박람회에서는 SOHO(Small Office)시장이 컴퓨터 및 정보통신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임을 시사했다. 즉, 멀티미디어를 통해 불필요한 이동이나 모임을 줄일 수 있으며 강력한 기능을 갖는 노트북 컴퓨터, 광과일시스템등 사무실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들과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자동응답기능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된 복합형 기기등의 출품이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참여 급증

이번 박람회에서는 유럽은 물론 세계 정보통신시장에서 비교적 열세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참여가 급증한 것이 두드러졌다. 특히 대만, 홍콩, 싱가포르등을 중심으로 많은 업체가 참가했는데, 주최측의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경우 총 631개사의 제품을 출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근 유럽시장이 단일화됨에 따라 유럽지역 정보 및 통신시장이 비약적으로 증가되었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정보통신 관련기술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에 기인한다. 실제로 호주의 경우 「인텔리전트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주제 아래 하이테크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심는데 주안점을 두고 통신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각종 정보통신 관련제품을 전시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시운영이 단조로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다른 세계적인 정보통신 박람회-예를 들어 미국의 컴덱스쇼 처럼 관람객들의 눈을 끝만한 이

▼ CeBLT '95 전시장 모습



벤트 행사가 없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는 아마도 전시회 성격이 신제품을 출시해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려는 적극적인 홍보보다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차분하게 상담에 응하려는 전시태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표 1] CeBIT '95 전시품목

부 문	참가업체	내 역
정보산업전	1,500	PC, 컴퓨터부품 및 확장기기, 주변기기, 각종 정보처리 기기, 인쇄기기 등
네트워크컴퓨터전	400	S/ W, H/ W, LAN, 전송모드, UPS 등
CIM	600	CIM H/ W, S/ W, CAE, CAD, CAM, EDA, CAT, 생산 기획 및 통제, 자동인식장치, 바코드, 카드시스템
S/ W	2,000	시스템S/ W, 응용S/ W, DB S/ W, 각종 S/ W
통신산업전	600	음성정보, 데이터정보, 텍스트정보, 영상정보, 이동전화, 무선통신, 위성통신, ISDN등
사무자동화전	500	우편물자동처리기, 타자기, 계산기, POS 등
은행전산관리전	150	은행재무관리시스템, 금융시스템, 금융자동화시스템등
안전관리시스템	160	데이터 시큐리티등 각종 안전관리 장비
연구 및 신기술 관련 전시	485	각종 민간기관이 참가한 컴퓨터 각분야의 기술소개
호주정보통신산업	100	호주 정보통신 소개

▲ BT의 글로벌 네트워크서비스 및 화상회의서비스